

인후두 역류 질환의 진단 방법으로서 Water-Siphon Test의 유용성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목동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배소영* · 정성민 · 김한수 · 백승연 · 김현지 · 장동혁

목 적

인후두 역류 질환(LPRD)은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 중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후두 증상 및 음성 장애를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 50%에서 인후두 역류 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이처럼 흔한 질환인 인후두 역류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Water-Siphon test (WST)를 이용해 보았고, 이에 기반하여 인후두 역류 질환의 치료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이대 목동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LPRD로 의심되는 22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WST와 설문 조사, 후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WST의 결과는 1) 역류 정도, 2) 역류 횟수, 3) 역류의 저류 시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Reflux symptom index와 Reflux finding score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WST를 인후두 역류 질환의

진단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유용성에 대하여 평가해 보았다.

결 과

인후두 역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대상자 중 91.6%에서 WST상 역류 소견을 보였고, 이 그룹에서 시행한 RSI, RFS에서 RSI는 13.86 ± 8.75 , RFS는 8.06 ± 3.21 의 평균치를 보였다. 역류의 정도는 가성대구, 후두 내 점액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고, 역류의 횟수는 후두 내 점액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WST의 양성 예측도는 82.7%, 민감도는 91.5%이었다.

결 론

WST는 인후두 역류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만한 유용한 방법이며, 후두 내시경 검사상 후두 내 점액 및 가성대구 소견이 이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